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15일(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수산과	담당자 · 수산정책팀장 송병훈 · 담당자 배주승·황경찬	☎ 440-4851 ☎ 440-4852,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어도, 아름다운 인천 갯벌정원으로 재탄생 ‘시동’
 - 세어도항 어촌뉴딜 사업 기공식 개최 -
 - 총 사업비 95억 원 투입,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어촌경제 활성화 기대 -
 - 시, 활기 넘치는 어촌 조성위해 어촌뉴딜 사업 추진 적극 지원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15일 서구 세어도 일원에서 세어도항 어촌뉴딜 사업 기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세어도항 어촌뉴딜 사업의 착공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기공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재현 서구청장,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신동근 국회의원, 전재운·김종인·임동주 인천시의회 의원 및 김명주·이순학 등 서구의회 의원, 구길모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조창남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김오현 세어도 어촌계장 등 주민·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촌뉴딜 사업이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해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사업비 1,215억 원을 투입해 ▲ 중구 소무의항,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답동항·대소이작항 ('19년 선정 사업) ▲ 서구 세어도항, 강화군 창후항·황산도항, 옹진군 장촌항, 자월2리항 ('20년 선정 사업) ▲ 중구 삼목항, 강화군 초지항, 옹진군 서포리항 ('21년 선정 사업)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세어도항 지역은 근래 어획량이 줄어들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어촌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어촌뉴딜 사업으로 세어도항은 사업비 약 95억 원이 투입되어, 물양장 확장·선착장 정비·안전난간 설치·대합실(터미널) 신축·갯벌어장 진입로 조성·쓰레기 적환장 이전·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사를 추진해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세어도는 어업 환경과 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져 세어도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대폭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세어도항 어촌뉴딜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까지 안전하고 무사히 공사가 마무리되어 세어도가 아름다운 인천의 갯별정원으로 재탄생하길 기원한다” 고 말하며 “인천시

에서는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가 활기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뉴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